



우리카드 최홍석(왼쪽)이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OK저축은행전에서 상대 3명의 블로킹을 뚫고 스파이크를 날렸다.

장충 |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김도현 기자 dohony@donga.com

광주세계수영 조지위 새해부터 홍보 캠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는 2일 광주공항, 송정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조직위 직원 100여명과 함께 새해맞이 시무식 겸 광주수영대회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직위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동·하계올림픽,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대회와 더불어 세계 제4대 메가스�포츠대회라는 점을 광주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수달을 의인화한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수컷)'와 '달이'(암컷)가 새해 축복과 광주 방문 환영인사를 함으로써 홍보 캠페인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고, 방문객과 시민들은 마스코트와 함께 하는 기념사진 촬영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프로선수가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로 나눠 진행되며 208개국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홍석 부활...우리카드, 반전카드 생겼다

OK저축은행전 15득점·3블로킹 맹활약 '에이스' 파다르와 팀 4연패 탈출 이끌어



우리카드는 2017년 12월 21일 인천 대한항공전부터 12월 30일 의정부 KB손해보험전까지 열흘간 4경기 치르는 강행군을 했다. 2.5일마다 한 게임을 소화하는 고된 일정이었다. 게다가 첫 3게임에선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의 쓴잔을 들이키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승점 3을 챙겼지만, 접전 승부에서 계속된 패배에 선수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2017년 12월 3일 한국전력전 이후 약 1개월 만에 홈 코트로 돌아온 우리카드 선수들의 초반 움직임은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파다르의 공격이 빈번히 상대 수비와 블로킹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카드에서 파다르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올 시즌 44.1%의 공격점유율이 그의 팀 내 비중을 설명하는 지표다. 한마디로 파다르가 득점에 어려움을 겪으면, 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날 1세트 중반까지 흐름이 그랬다.

전반다행으로 반대편 날개에 최홍석이 버티고 있었다. 이날 15득점(3블로킹)을 기록한 그는 세트에만 10점을 따내며 해결사 노릇을 했다. 이는 우리카드가 세트스코어 3-0(35-33 26-24 25-18)의 완승을 거두며 4연패를 탈출한 원동력이었다.

김 감독은 늘 "최홍석이 팀의 키플레이어"라고 강조한다. 워낙 뛰어난 공격력을 지닌 터라 기본적인 역할만 해줘도 팀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3라운드 중반까지 컨디션 난조로 애를 먹었던 최홍석은 2017년 12월 24일 대전 삼성화재전에서 24점을 뽐내며 컨디션이 회복했음을 알렸고, 이날까지 4경기에서 경기당 19.75득점을 기록했다. 파다르에게 찍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이는 우리카드가 반전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늘 "최홍석이 팀의 키플레이어"라고 강조한다. 워낙 뛰어난 공격력을 지닌 터라 기본적인 역할만 해줘도 팀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3라운드 중반까지 컨디션 난조로 애를 먹었던 최홍석은 2017년 12월 24일 대전 삼성화재전에서 24점을 뽐내며 컨디션이 회복했음을 알렸고, 이날까지 4경기에서 경기당 19.75득점을 기록했다. 파다르에게 찍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이는 우리카드가 반전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충체육관 |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KOVO, 오늘부터 전자장비 도입... '심판 불신' 해소될까

홍국-GS칼텍스전부터 테블릿PC 배치 비용 대비 효율·추가 예산 우려 시선도

한국배구연맹(KOVO) 최재효 심판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13경기 중 11경기에 주심(7경기) 혹은 부심(4경기)으로 출장했다. 12월 19일 한국전력-KB손해보험전 '오심 사례'로 당일 주·부심 2명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진 뒤, 전담심판은 7명으로 줄었다.

다. 그만큼 최 심판을 비롯한 남은 이들의 '후사 지수'가 심각해졌다. 여자배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강주희, 전영아 심판이 거의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엄혹한지라 그럼에도 어디다 하소연하기 힘든 '연좌제'를 겪고 있는 셈이다. A심판은 "체력적,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업무 강도를 못 버티고, 또 치명적 오심이 터져 징계가 발생하면 리그 자체가 못 버틸 위기에 노출돼 있다.

KOVO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을 전자장비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인천 계약체육관에서 열리는 홍국생명-GS칼텍스전에 테블릿 PC를 주·부심에게 배치할 예정이다. 부심에게 맡기던 포지션 폴트 등을 기계로 잡아내 심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책이다. 장충체육관과 계약체육관에 시범운영한 뒤, 효율을 판단해 정식 도입을 결정한다.

관에서 열리는 홍국생명-GS칼텍스전에 테블릿 PC를 주·부심에게 배치할 예정이다. 부심에게 맡기던 포지션 폴트 등을 기계로 잡아내 심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책이다. 장충체육관과 계약체육관에 시범운영한 뒤, 효율을 판단해 정식 도입을 결정한다. 관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 등 돈 문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율이 합당하냐? KOVO가 추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내재돼 있다. KOV

O 관계자는 2일 "투자 없이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운영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심을 없애기 위해 KOVO는 중장기적으로 '호크아이' 같은 판독 시스템 도입도 생각 중이다. 중국, 일본 리그처럼 자체 시스템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비용부담이 증대된다. 도입이 안착되면, 향후 심판 혹은 기록원 인력이 줄어드는 '기계화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배구인은 "기계로 오심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큰 논란이 불거졌던 판정 논란은 결국 소통과 인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KOVO의 '선'의는 바른 결과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생활체육 활동수기 시상

대한체육회, 부문별 총 27명 선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2월 28일 서울올림픽 파크텔 3층에서 '2017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활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느낀 점과 가정화목, 대회 참가, 재능 나눔 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총 102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학생, 토요일스포츠강사, 학부모 등 기타참여자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총 27명을 선발했다. 세부결과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홈페이지(sat.sport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생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70만원 상당의 자전거, 우수상에 50만원 상당의 스포츠밴드, 장려상에 20만원 상당의 중형백팩과 대한체육회장상이 수여됐다. 강사와 기타참여자 부문 최우수상으로는 70만원 상당의 테블릿PC, 우수상은 50만원 상당의 다용도제, 장려상에는 20만원 상당의 이어폰과 상상이 주어졌다. 수상자 전원에게 활동수기 모음집을 제공했다. 모녀 수상(장려상/허효정·심지원)자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배구 (2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현대캐피탈	20	13	7	42	1741	
2	삼성화재	20	14	6	39	1833	
3	한국전력	20	10	10	32	1691	
4	대한항공	20	11	9	30	1887	
5	KB손해보험	20	10	10	28	1892	
6	우리카드	21	8	13	25	1936	
7	OK저축은행	21	5	16	17	1838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1	파다르	우리카드	607	1	신영서	현대캐피탈	
2	가스파리나	대한항공	528	2	김규민	삼성화재	
3	타이스	삼성화재	498	3	박상하	삼성화재	
4	알렉스	KB손해보험	459	4	진성태	대한항공	
5	펠리페	한국전력	448	5	펠리페	한국전력	
경기결과							
우리카드		3	35-33 26-24 25-18	OK저축은행		0 (5승1패)	
NBA (2일)							
팀순위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30	10	1	클리블랜드	24	12
2	토론토	25	10	2	디트로이트	20	15
3	뉴욕	18	13	3	밀워키	19	16
4	필라델피아	17	19	4	인디애나	19	18
5	브루클린	14	23	5	시카고	13	24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미네소타	24	14	1	휴스턴	21	9
2	오클라호마	20	17	2	샌안토니오	25	12
3	포틀랜드	19	17	3	뉴올리언즈	18	18
4	덴버	19	17	4	새크라멘토	12	24
5	유타	16	21	5	LAL	11	25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버모드	총 평균	리버모드	총 평균
1	아데티(코리안생명)	957.29	1	재진(신원)	331.92	1	드림(대우증권)
2	재진(신원)	1001.27	2	엘(위성)	227.85	2	하위(대우증권)
3	올리(대우증권)	821.24	3	시원(신원)	263.75	3	영(대우증권)
4	대우(대우증권)	871.24	4	포우(대우증권)	246.7	4	아(대우증권)
5	영(보스)	841.24	5	슈(대우증권)	225.68	5	간(대우증권)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버모드	총 평균	리버모드	총 평균
1	하(보스)	1132.32	1	엘(보스)	370.10	1	조(보스)
2	캐(보스)	943.26	2	하(보스)	318.91	2	캐(보스)
3	유(보스)	829.25	3	그(보스)	236.76	3	타(보스)
4	대(보스)	801.25	4	타(보스)	225.73	4	카(보스)
5	필(보스)	782.25	5	볼(LAL)	220.71	5	메(보스)
경기결과							
포틀랜드		124-120 (연장)	시카고		미네소타		114-96 LAL
브루클린		98-95	올랜도		토론토		131-127 (연장)
해외축구 (2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1	맨체스터시티	21	59	19	0	2	41
2	맨체스터유나이티드	22	47	14	3	5	27
3	첼시	21	45	14	3	3	25
4	리버풀	22	44	12	2	8	28
5	아스널	21	38	11	5	5	20
6	토트넘	20	37	11	5	4	20
7	버밍엄	22	34	9	6	7	27
8	클러스터시티	22	30	8	6	6	27
9	에버턴	22	27	7	10	4	27
10	왓포드	21	25	7	10	4	27
11	허더스필드	22	24	6	10	6	27
12	브라이튼	22	23	5	9	8	27
13	뉴캐슬	22	22	6	12	4	27
14	보머스	22	21	5	11	6	27
15	사우스햄튼	21	20	4	9	8	27
16	스토크시티	22	20	5	12	5	27
17	크리스탈필즈	21	19	4	10	7	27
18	웨스트햄	20	18	4	10	6	27
19	웨스트브롬위치	21	16	2	9	10	27
20	스완지시티	21	16	4	13	4	27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브라이튼	2-2	분버	리버풀 2-1 버리								
맨체스터Utd.	2-0	에버턴	레스터시티 3-0 허더스필드								
뉴캐슬	1-0	스토크시티									
NHL (2일)											
팀순위											
순위	메탈릭	승	패	OT	P	순위	메트로폴리탄	승	패	OT	P
1	애틀랜타	28	8	2	58	1	워싱턴	24	13	3	51
2	보스턴	21	10	6	48	2	뉴저지	22	10	6	50
3	토론토	23	15	2	48	3	뉴욕R	21	13	5	47
4	플로리다	17	16	5	39	4	콜럼버스	22	15	3	47
5	디트로이트	15	16	7	37	5	뉴욕I	20	15	4	44
6	몬트리올	16	19	4	36	6	캐롤라이나	18	13	7	43
7	오타와	12	17	8	32	7	피츠버그	19	18	3	41
8	버펄로	10	20	9	29	8	필라델피아	16	14	8	40
서부 콘퍼런스											
순위	센트럴	승	패	OT	P	순위	퍼시픽	승	패	OT	P
1	워니퍼	23	11	6	52	1	베가스	26	9	2	54
2	내슈빌	23	10	5	51	2	LA	23	11	5	51
3	St. 루이스	24	15	2	50	3	샌제이	20	12	4	44
4	달러스	22	15	3	47	4	애너하임	18	14	8	44
5	미네소타	20	16	3	43	5	캘거리	19	16	4	42
6	시카고	18	14	6	42	6	에드먼턴	17	19	3	37
7	콜로라도	19	16	3	41	7	밴쿠버	16	18	5	37
경기결과											
뉴욕R		3-2 (연장)	버펄로								
아마추어 경기결과 (2일)											
농구											
● 2017-2018 KBL D리그 1차(고양보조)											
● 결승전=상무(우승) 85-84 전자랜드											
테니스											
● 2018 ATP투어 250시리즈 브리즈번 인터내셔널(호주)											
● 단식 본선 1회전=정현(한국) 2-0 플러(독일)											

경기 예고		
프로농구 (3일)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DB
오후 7시, MBC스포츠플렉스		
인삼공사	<안양실내>	kt
오후 7시, 이스타, MBC스포츠플렉스2		
여자프로농구 (3일)		
● 2017-2018 정관장 KBL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DB
오후 7시, MBC스포츠플렉스		
인삼공사	<안양실내>	kt
오후 7시, 이스타, MBC스포츠플렉스2		
2017-2018 신한은행 WKBL		
KB스타즈	<청주체육관>	삼성생명
오후 7시, KBS W		
프로배구 (3일)		
●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대한항공
오후 7시, KBS스포츠		
●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인천계양	GS칼텍스
오후 5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3일)		
농구		
● 2017-2018 WKBL 퓨처스리그(청주체육관, 오후 3시30분)		
● KB스타즈-삼성생명		
축구		
● 제 14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경남 창원군) ● 준결승전=용인대-아주대(오후 12시45분), 우석대-홍익대(오후 2시30분)		
빙상		
● 제 48회 회장배 전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태릉국제스케이팅장, 오전 11시)		